긴급사태 선언 연장(8 월 20 일~9 월 12 일)에 따른 시장님 메시지

히라카타 시장인 후시미 다카시입니다.

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
국가에서는 오사카 등 6 도부현에 발출하고 있는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8 월 20 일부터 새롭게 7 개부현 을 추가해 8 월 말까지로 하고 있었던 기간을 9 월 12 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. 이지시를 받아 오사카부로의 음식점 주류 제공의 자숙이나 단축 영업 이벤트의 개최 제한과 같은 조치를 계속해서 부민에 요청하는 것 외에 백화점의 지하 식품 판매장의 입장객수를 반수에 억제하는 것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 한층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우리 시에서는 8 월 19 일에 대책 본부 회의를 개최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의 소관 시설의 개관 시간을 오후 8 시까지 단축하는 것 그리고 이벤트의 개최 제한과 같은 조치를 9 월 12 일까지 연장하는 것 등을 결정했습니다.

우리 시의 신규 감염자수는 7 월 12 일부터의 일주일로는 53 명이었습니다만 8 월 9 일부터의 일주일로는 341 명과 1 개월로 6 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. 전국적으로 젊은 세대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약 반이 20 대까지의 젊은이로 50 대까지가 9%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젊은 분이 입원하고 있는 분을 포함하여 오사카 부내의 병상 사용율 은 70%를 넘는 등 예측을 불허한 상황입니다. 감염 대책의 철저는 물론입니다만 현역 세대나 젊은이에게의 백신 접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.

우리 시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8 월에 들어가서 50 대의 쪽의 접종 예약을

접수하는 중입니다만 8 월 27 일부터는 40 대(40 세~49 세)와 임산부 (※) 그리고 9 월 10 일부터는 12 세~39 세의 쪽의 예약을 스타트할 예정입니다. 공급 부족에 따른 스케줄 변경도 있어 시민의 여러분께는 불안과 걱정을 끼치고 있었습니다만 희망하는 모든 여러분이 예약하실 수 있게 됩니다.

오사카부의 분석으로는 백신을 2 회 접종하는 것으로 발증을 억제 중증화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우리 시에서도 80 퍼센트 이상이 2 회의 접종을 끝마치고 있는 65 세 이상의 쪽의 감염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. 한편 부반응 등 불안을 느껴지는 분도 계십니다. 한 사람 한 사람의 컨디션이나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예약·상담 콜 센터(☎0120-885-755)에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.

물론 백신을 접종해도 감염 리스크가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특히 이번 감염력이 강한 델타 주식에 대해 방심은 금물입니다. 마스크 착용이나 손을 잘 씻고 소독 환기 소셜 디스텐스와 같은 감염 대책의 철저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.

(※)8 월 24 일 추가:40 대(40 세~49 세)의 분→ 40 대(40 세~49 세)과 임산부 분

레이와 3 년 8 월 20 일

히라카타시 시장 후시미 다카시